



▷김복진씨의 유일한 완성품으로 확인된 정혜사 석고관세음보살좌상.

정혜사 석고관세음보살좌상 '김복진씨 작품' 확인

덕숭총림 정혜사 관음전에 모셔진 '석고 관세음보살 좌상(1939년작, 사진)'의 작가가 한국 근대 최초의 조소 예술가 장관 김복진(1901~1940)씨의 작품으로 확인돼 미술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최근 결성된 사단법인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사장 도후 스님/발표장소 이사장, 심원사 주지)이 불교미전 준비를 위한 근·현대 미술품 자료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근·현대 미술품발굴팀장 윤범모 교수(경원대)는 "만공 스님의 지시로 김복진 선

은 1994년 윤범모 교수가 발굴한 충남 계룡산 소림원 미륵불상(1935년작)이 있지만, 이것은 김계 금산사 미륵전 본존상을 스케치한 모형작품이어서 50여점 되는 그의 작품중 유일한 완성품은 이번에 확인된 '정혜사 석고관세음보살 좌상' 뿐이다.

생전에 호신불로 관음상을 몸여 지니고 다닐 정도로 독실한 불자였던 김복진씨는 1925년 동경미술학교 조각과를 졸업하고 귀국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조각가였다. 또 일제치하에서 미술평론가, 문예운동가,

근대 최초 조소 예술가의 유일 완성품 무릎 곡선이 유려·아름마 같은 친근미

생이 불상을 직접 조성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수덕사 덕숭총림 방장인 원담 스님의 증언을 통해 사실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드러난 정혜사 관세음보살좌상(전체높이 105cm)은 당시 신재료였던 하얀색 석고로 조성된 작품으로, 유려한 몸매와 원만한 상호(相好)에 앞으로 내민 왼손에는 정병(淨瓶)이 얹혀진 연꽃줄기를 잡고 있는 이색적인 연출이 특징이다. 특히 결가부좌 양쪽 무릎으로 흐르는 곡선미가 눈길을 끌며, 넉넉한 이웃집 아줌마 같은 친근미가 풍겨나는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현존하는 김복진씨의 작품으로

연표인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20세기 전반부 한국 미술인 가운데 유일하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기도 했다.

한편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은 현대불교 신문사 김광삼 사장을 비롯해 안장현(사진작가), 이준고(출판인), 윤범모(경원대 교수), 성태용(건국대 교수), 김형근(불지사 대표), 이기선(동국대 강사), 황남채(판화가) 등 불교계의 문화, 언론, 출판, 예술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7월 31일 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근현대불교미술 전람회 등 앞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nia.com



캐릭터·음반·애니메이션 등 불교문화콘텐츠 개발·보급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도후스님

"불교 문화 를 알아야 한국문화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불교가 지닌 전통문화 가치를 종교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한발짝 더 나아가서 독창성있는 한국문화산업 육성과 세계화 기여에 한 몫을 할 것입니다."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도후 스님은 창립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스님은 또 "불교문화를 육성하고 산업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불교문화운동을 펼쳐지는 게 주목적"이라며 "불교적인 캐릭터,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등 불교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의 첫 번째

사업으로 한국불교계가 신라, 고려, 조선 시대의 미술을 위주로 하는 고미술 분야에서는 활발한 발굴과 연구를 해 온 반면, 근현대미술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내주에 근·현대 불교미술전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불교전통문화의 해외보급을 비롯해 불교문화인력 양성, 회원들의 신심고취를 위한 수행활동 등을 기본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도후 스님은 "내년에는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들을 폭넓게 영입해 한 분야에만 치중하지 않고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전진 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환상적인 빛의 마술 천하제일 중국 燈 축제

한중수교 10주년을 기념하는 '천하제일 중국 등(燈) 축제'가 11월 3일까지 서울 김포공항내 진디공원에서 열린다. 환상적인 빛의 마술을 선사할 이번 행사에는 서유기와 같은 중국 고전의 주인공 등을 형상화한 테마 등을 포함해 대형 등 40개와 소형 등 3백여개가 다채롭게 선보인다. 특히 중국 서안 법문사에 봉안된 불상들을 소재로 제작한 '사면불상등(四面佛像燈)' <사진>은 4면의 불상이 360도 회전하고 불상의 손에서 물줄기가 쏟아지며 이 물방울에 닿는 사람에게는 복이 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축제에는 세계최고의 묘기를 자랑하는 사천성 기예단과 중국전통가면술 공연도 펼쳐진다. 02-3661-3337



▷중국 서안 법문사 불상들을 소재로 제작한 '사면불상등' 사진=고영매 기자

대 상 박미진 씨의 '열반'

최우수상 허락 씨의 '금강반야바라밀경'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입상작 발표



▷대상작인 박미진 씨의 '열반'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스님)은 제 19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대상 수상자로 '열반(涅槃)'을 출품한 박미진(26·동국대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4년)씨를 선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또 최우수상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출품한 허락(56·서예가)씨, 우수상은 '신승행화'의 이경아, '삼화상탱'의 하경진, '수월관세음보살'의 손진수, '상원사 문수동자'를 조각한 정호민, 전 통공에 '향로'의 윤기현, 현대명면 '보리살타를 꿈꾸며(II)'의 원운선씨 등 6 명이 각각 수상했다.

이외에도 장려상 11명, 특선 16명,

입선 15명 등 총 50명이 수상했다.

이번에 응모된 작품은 회화, 조각, 공예, 서예, 현대명면, 현대입체 등 6개 분야에 걸쳐 총 210여점이며, 이는 지난해 250여 점에 비해 다소 적은 양이다.

심사위원장 범하 스님은 "응모작품수가 줄어들어 아쉬움을 남겼지만 창의성 있는 작품이 많이 출품됐으며, 수준은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또 "어떻게 처리한 탕화들 배경으로 승무를 추고 있는 인물을 밝게 표현함으로써 명암대비를

통해 화면에 생동감을 부여했다"며 "평범한 소재에도 불구하고 명상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차분한 색조와 표현 대상에 대한 성실한 묘사, 섬세력 높은 공간처리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음이 돋보인다"며 대상 선정이 유독 덧붙였다. 대상과 최우수상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1천만원과 500만원이 주어진다.

조계종 총무원은 12일 오후 2시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며, 수상작들은 12~20일 예술의전당 제3전시실에서 전시된다.

김주일기자



작품완성과정 수행으로 생각 행화線 하나하나에 온갖정성

대상수상자 박미진씨

막상 이렇 게 큰상을 받고보니 기쁨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할겸하는 아쉬움이 크다는 박미진씨는 불화전공자가 아니어서 후 불행화에 등장하는 불보살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감상자의 눈을 단번에 고정시키기 위해 나비춤을 추는 한우의 인물을 등장시켰으며, 사선을 점점 확대시켜 결국은 후불탱화 속의 부처님에 도달시 키고자 한 것이 이번 작품의 감성 포인트

트"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품을 완성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불탱화의 선 하나를 그릴 때도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다는 박씨는 "불교문화는 다른 것에 비해 전통이 많이 훼손되지 않아 작품의 소재로 선택하기에 폭이 넓다"며 "작품 속에서 우리 전통 색을 고수하면서도 대중들에게 편인한 을 잃지 않는 채색이 묻어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318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합시다.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37-8881, 02-722-4162 팩스: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聖寶
가정에 봉안하면 家寶
읽고 마음 밝히면 法寶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탕화가 화려한 단장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문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부다피카드로 봉인불사를..

현대불교신문사와 외환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카 외환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도가 부다피카외환비자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1점(4백77만원)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